

배달 오토바이 폭주 심각...공포의 광주 도심

차없는 거리 무법질주에 야간 경적 위협 등 시민들 불안

등록대수 증가 속 5년간 사고 2065건...단속은 거의 없어

최근 주말을 맞아 아들(6)과 함께 전남 대학교 후문 앞 상가 밀집지역인 '차 없는 거리'를 걷던 박모(44)씨는 놀란 가슴을 쏘아내려야 했다.

이 길 끝자락에서 영업중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K차킨 배달원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아들이 부딪힐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K차킨 배달원의 태도였다. 기본 보호장비인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던 이 배달원은 오히려 "애XX를 어떻게 교육하나. 내가 다칠 뻔했다. 사과해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박씨는 "도대체 아들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차 없는 인도를 걸었을 뿐인데, 폭언까지 들으니 아이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근 전남대학교 교정에도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하고, 요란한 경적을 울려 대며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수차례 목격됐지만 이를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은 "배달 오토바이의 폭주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단속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 북부경찰은 최근 전남대학교 캠퍼스와 후문 인근 차 없는 거리에서 오토바이와 관련한 단속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광주 도시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법을 무시한 난폭운전을 일삼아 광주시민에게 공포의 존재가 되고 있다.

이들은 난폭운전을 넘어 인도를 걷고 있는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야간이면 요란한 조명으로 오토바이를 치장하고, 소음에 가까운 경적을 울려대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 단속은 전무하다. 특히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300대 이상씩 등록대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8월말 기준으로 광주시에 등록된 오토

바이는 모두 3만9353대에 이른다. 2012년 3만7762대에서 2013년 3만8125대, 2014년 3만8452대, 2015년 3만8853대, 2016년 39015대로 매년 평균 300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늘면서 도심에서 크고 작은 오토바이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을 기준으로 2013년 445건에서 2014년 501건, 2015년 464건, 2016년 434건, 올 6월 현재 221건 등 총 2065건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1월 148건, 2월 150건, 3월 181건, 4월 192건, 5월 225건, 6월 214건, 7월 162건, 8월 166건, 9월 169건, 10월

159건, 11월 154건, 12월 145건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오토바이 난폭 운전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불법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배달원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에 대해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최근 배달 대행업체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불법운행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해남의 한 중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한달새 백혈병 환자 3명...학부모들 불안

전남교육청 초·중 졸업생 등 2200여명 혈액검사 하기로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혈액암) 환자가 한 달 새 3명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전남 해남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이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 학생이 졸업한 2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등 모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할 예정이다.

혈액검사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

부모들에게 동의를 받은 뒤 오는 10~12일 해남지역 4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주변 공기 질 검사와 수질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해남군도 절차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벤젠과 방사선 등에 노출될 때 걸리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보통 3~5살 사이의 소아나 60살 이상의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 이외 시기에 발

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같은 학교에서 한 학생이 혈액암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해남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이 병에 걸린 중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자기 백혈병 환자가 발생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난 9월에 수질과 공기 질 검사를 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다시 필요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조립식 주택 화재 50대 숨져

지난 30일 오후 5시35분께 나주시 세지면 장모(59)씨의 조립식 컨테이너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 여 만에 진화됐으나 장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119에 따르면 장씨는 불이 나자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씨가 거주하는 집은 조립식 건물로 창문은 방범창이 설치돼 있고 출입문은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7년 전 아내와 사별한 장씨는 원래 집은 광주지만 나주에서 근무를 하며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북유럽 여행 하루 전 "290만원 더 내라"

여행사 갑작스런 추가요금에 고객 분통

18명 추가비용 내고 출발

4명은 포기 여행사 대표 고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기외유를 예약했던 일부 여행객들이 여행사에서 출국 전 날 고액의 추가금을 요구하자 여행을 포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여행 출발 하루 전 여행사 대표가 고객들에게 추가금 300여만원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모 여행사 대표 J(4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4월 고객 22명에게 8박9일 일정의 북유럽 여행(9월 30일~10월 8일) 상품을 1인당 450만 원씩 받고 판매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인 지난 29일 항공요금과 호텔 예약비용 등의 상승으로 경비가 추가됐으며 고객들에게 여행경

비의 65%에 이르는 29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고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여행을 갈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8명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추가금을 내고 지난 30일 여행을 떠났지만 나머지 4명은 추가금 요구에 반발해 여행을 포기하고 J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J씨는 경찰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이 갑자기 올라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J씨는 지인 5명으로부터 여행사 투자금 명목으로 7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갈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고소당해 지난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J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만원이 북한군으로 지목한 시민군 6명

법정 증인으로 나서 왜곡 밝힌다

극우 보수는객 지만원(75)씨가 5·18 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군으로 지목한 시민군 등 6명이 법정 증인으로 나서 그의 주장이 왜곡 날조됐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2일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지만원씨 형사공판에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했던 시민군 등 6명이 증인으로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씨는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증인 6명은 법정에서 본인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지씨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주시민 450여명을 '광수'(5·18 당시 광주 투입 북한특수군)로 지목했다. 이반에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은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총탄을 관리했던 박선재씨, 도청 입구를 지켰던 김선문씨 등이다.

광주시와 5·18재단 및 5월 3단체, 전국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차례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은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지하철역서 '김정은이 암살 지시' 쪽지와 모의총기 발견



○...광주의 한 지하철역에서 모의총기와 '김정은이 암살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0시40분께 A(41)씨가 "광주도 시청도 1호선 양동시장역 남자화장실에 놓여 있는 직사각형 종이상자를 열어봤는데 총기 1정, 가스장약, 쇄구슬, 쪽지 등이 들어있다. 출동해달라"고 신

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 모의총기를 회수.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모의총기의 살상능력 검증과 지문감식, 필적검정 등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총기와 쪽지를 두고 간 사람을 파악 중"이라며 "대공 율의점은 물론 장난기나 자작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텍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